

...우리 민족이 통일해야 할 이유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의 민족, 하나의 국가를 이루며 살아왔다는 것이다. 우리 민족이 비록 지금은 둘로 갈라져서 살고 있지만 언젠가는 꼭 통일을 이룩해야 한다는 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역사적 사명이다...

## 주제가 있는 통일문제 강좌 **15**

### 알기 쉽게 풀어 쓴 **통일 이야기**



집필 : 정석홍 (동신대 교수)



통일부 통일교육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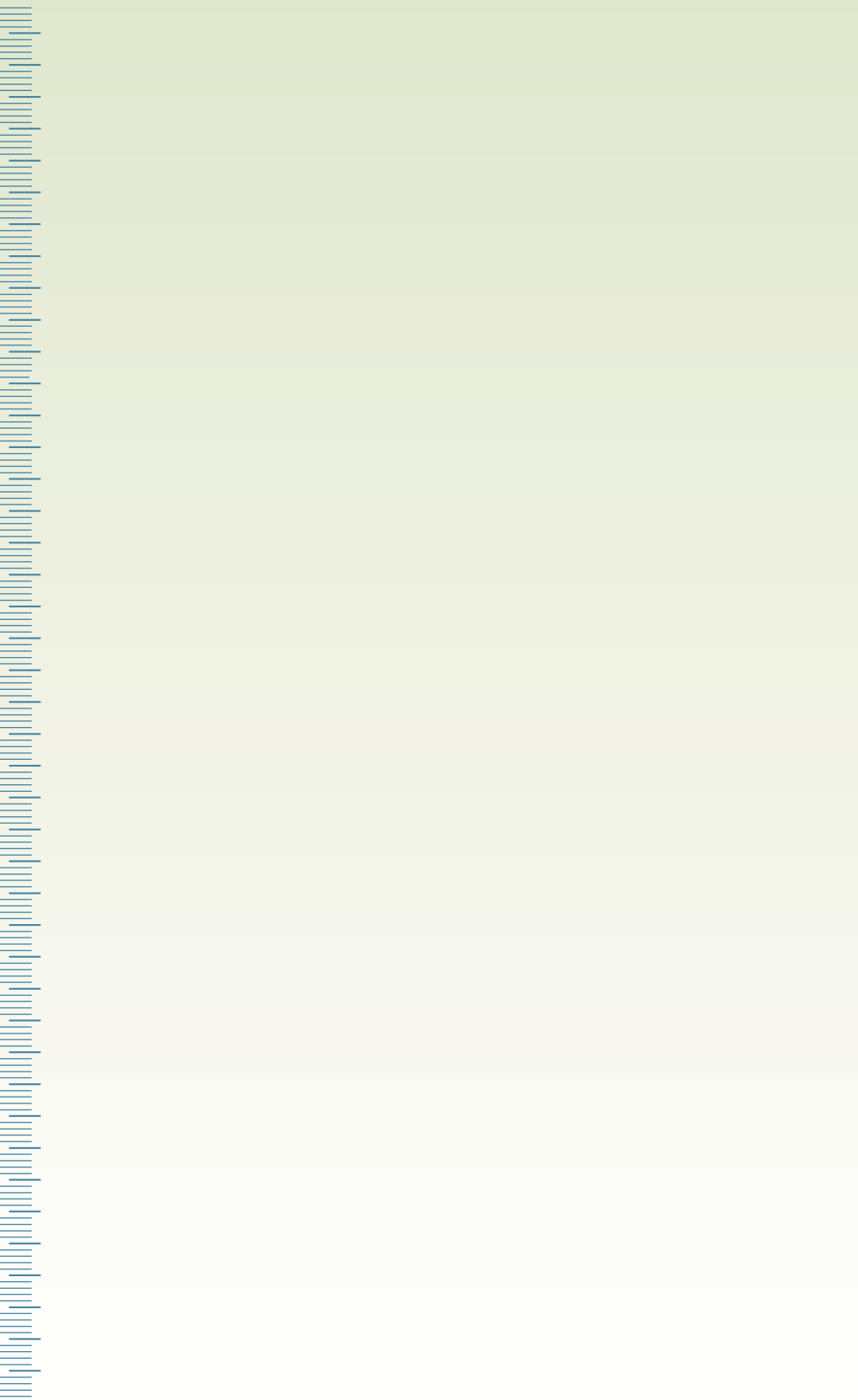
통일교육원은 지난 2003년부터 통일·북한문제와 관련된 쟁점이나 다양한 소재를 인터넷에서 공모하여 ‘주제가 있는 통일문제 강좌’를 시리즈로 발간해 오고 있습니다.

‘주제가 있는 통일문제 강좌’ 시리즈의 15번째로 발간되는 이 소책자에서는 우리 민족의 소원이자 과제인 통일과 관련된 여러가지 문제들을 살펴 보았습니다. 즉 우리가 통일을 이루어야 하는 이유, 남북한의 통일정책, 최근의 남북관계와 북한 실상, 북한의 미사일 및 핵개발 문제 등에 관해 알기 쉽게 풀어 써서 통일문제를 이해하는데 다소나마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 주제가 있는 통일문제 강좌 **15**

### 알기 쉽게 풀어 쓴 **통일 이야기**





# CONTENTS



## I . 우리는 원래 하나의 나라였다

7

1. 우리는 하나의 민족으로 살아왔다 8
2. 우리나라는 왜 남북으로 갈라져 살게 되었는가? 9
3. 민족동질성 회복이 중요하다 10

## II . 우리는 왜 통일을 이루어야 하는가?

13

1. 하나의 민족, 하나의 국가를 이루고 살아가기 위해 14
2. 분단의 고통을 덜고, 인도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16
3. 자유와 인권이 보장되고, 온 민족의 행복한 삶을 위하여 17

## III . 남북이 갈라져서 살아도 같은 것이 많다

19

1. 명절은 우리와 다르지만 민속명절은 지켜지고 있다 20
2. 공중도덕과 예의범절은 지켜지고 있는 편이다 23
3. 부모의 회갑이나 가족의 생일도 지키고 있다 24
4. 장례와 제사는 어떻게 지내고 있는가? 26
5. 민속놀이도 잘 보존되고 있다 27

## IV . 남북이 갈라져 살다 보니 달라진 것도 있다

29

1. 남북한은 이념과 체제가 서로 다르다 30
2. 재산의 소유제도가 서로 다르다 31
3. 말이나 글도 많이 달라졌다 32
4. 신앙생활도 다르다 34



## V. 통일을 이룬 나라들을 알아보자

37

1. 독일 통일 : 가장 평화적이며 민주적으로 이루어졌다 38
2. 예멘 통일 : 평화통일 → 내전 → 무력에 의한 통일로 이루어졌다 39
3. 베트남 통일 : 북베트남에 의한 무력통일이었다 41
4. 중국과 대만 : 무력대결보다 교류 · 협력으로 평화공존하고 있다 42
5. 우리가 얻어야 할 교훈 43

## VI. 우리는 어떻게 통일하려 하는가, 그리고 현재의 남북관계는?

45

1. 우리의 통일정책 내용 46
  - (1) 우리의 통일정책은 어디에 뿌리를 두고 있는가?
  - (2) 평화번영정책의 목표는 무엇인가?
  - (3) 통일정책은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가?
2. 평화번영정책의 성과 50
  - (1) 통일을 향한 실질적인 남북대화가 이루어지고 있다
  - (2) 남북교역 10억 달러시대가 열렸다
  - (3) 학술교류 · 종교인 교류 등 남북왕래도 활발해지고 있다
  - (4) 이산가족의 만남도 여러가지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다
  - (5) 휴전선을 넘어 남북 철도 · 도로가 연결되었다
  - (6) 금강산관광도 하루만에 다녀올 수 있게 되었다
  - (7) 함께 잘 살기 위한 '개성공단' 건설도 잘 진행되고 있다



## VII. 북한은 변하고 있는가?

57

1. 남과 북의 경제력은 이렇게 달라졌다 58
2. 남한 동포를 미워하고 적대하는 감정이 줄어들고 있다 61
3. 남한 동포들의 사는 모습을 부러워하고 있다 61
4. 자본주의 시장경제를 서서히 알기 시작하였다 63
5. 집단생활보다 개인생활에 더 눈을 돌리고 있다 64
6. 바깥세상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65
7. 통제사회가 점차 느슨해지고 있다 66
8. 북한도 경제개혁과 농업개혁을 조심스레 시도하고 있다 67

## VIII. 한반도와 관련된 여러가지 문제

69

1. 북한의 미사일 개발은 이웃나라들을 위협하고 있다 70
2. 북한이 핵무기를 갖는 것을 이웃나라들도 반대하고 있다 71
3. 이웃나라들은 한반도 통일문제를 어떻게 보고 있는가? 73

## IX. 미래로, 통일로

75

1. 우리는 통일을 꼭 이루어야 한다 76
2. 통일은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한가? 76
3. 통일된 나라는 어떤 체제를 갖는 것이 바람직할까? 77
4. 통일이 된다면 우리나라는 어떤 모습이 될까? 77
5. 우리는 통일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가? 79

## <사진·표 목차>

<사진 1> 민족통일 대촉진행사에서 남북한 참가자들이 어울려 줄다리기를 하는 모습 11

<사진 2> 6·26전쟁 당시 피난민 행렬 15

<사진 3> 금강산에서의 이산가족 상봉 모습 16

<사진 4> 김정일위원장이 차려준 100돌 생일상 25

<사진 5> 북한의 대표적 민속놀이인 봉산탈춤(좌)과 북청사자놀이(우) 27

<사진 6> 북한 신발공장의 여성 노동자 31

<사진 7> 북한의 봉수교회에서의 예배모습(좌)과 보현사 전경(우) 35

<사진 8> 베를린 장벽 38

<사진 9> 베트남 지도 41

<사진10> 제19차 남북장관급회담 47

<사진11> 한반도와 대륙으로 이어지는 횡단철도 노선도 48

<사진12> 판문점 통일각에서 열린 남북장성급군사회담(2006) 50

<사진13> 이산가족들의 화상 상봉 모습 51

<사진14> 경의선(좌)과 동해선(우)궤도 연결 행사장 52

<사진15> 금강산 육로관광 차량 행렬 53

<사진16> 개성공단의 야경 54

<사진17> 남한의 명동거리(좌)와 북한의 평양거리(우) 59

<사진18> 남한에서 보내준 쌀을 나르고 있는 북한 주민들 60

<사진19> 북한의 고려항공을 타고 평양관광을 나서는 사람들 62

<사진20> 북한 어린이들의 설맞이 공연 모습 64

<사진21> 북한이 인공위성이라고 주장한 '광명성1호'의 발사대와 발사 모습 71

<사진22>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안 결의 모습 72

<사진23> 동북아시아 지형도 78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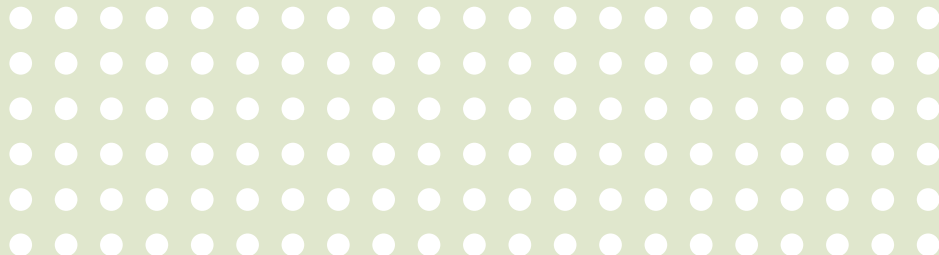
<표\*> 남북한 언어 비교 33



통  
일  
이  
야  
기

I

우리는 원래 하나의 나라였다





# I. 우리는 원래 하나의 나라였다

## 1. 우리는 하나의 민족으로 살아왔다

우리나라는 단군이 백두산을 중심으로 나라를 세운지 5천년이 넘는다. 발해와 고구려가 세력을 떨칠 때는 시베리아 동부지역과 중국의 동북지방까지 우리 민족의 영토였다.

우리 민족은 5천여년 동안 한반도를 터전으로 같은 핏줄을 이어오면서 문화·언어·생활양식 등에서 어느 나라보다 단일 민족의 특성을 잘 간직하고 있다.

비록 지금은 남북으로 갈라져 살고 있지만, 언젠가는 하나의 통일국가를 이루어 같이 살아가야 한다.

같은 민족으로서 한반도를 터전으로 통일국가를 이루고 살아온 오랜 역사에 비하면 지금 남북으로 갈라져 살고 있는

60여년은 결코 긴 것이 아니다. 우리는 꼭 통일을 이루어 하나 된 통일국가에서 모두가 자유·평화·번영·복지를 누리면서 행복하게 살아야 한다.

## 2. 우리나라는 왜 남북으로 갈라져 살게 되었는가?

우리나라는 고려가 후삼국을 통일한 이후 조선시대까지 한 민족, 한 국가로 이어져 왔다. 1910년 나라의 주권을 일본에 빼앗긴 이후 일본의 식민지 압제 아래 36년간 나라 잃은 설움을 안고 갖은 고통을 겪으며 살아왔다.

그러나 1945년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날 무렵 한반도의 북위 38도선을 경계로 북쪽에는 소련군이, 남쪽에는 미군이 들어옴으로써 우리나라는 사실상 남북으로 갈라지게 되었다.

그 후 미군과 소련군은 이른바 「미·소공동위원회」라는 것을 설치하여 단일정부를 수립하는 양 하면서도 실제로는 자기들에게 유리한 정부를 수립하려는 의도를 감추지 않았다.

특히 북쪽지역에 들어온 소련군은 이 지역에 소련 공산주의 체제를 심어가면서 공산정권을 세울 준비를 하고 있었다.

아울러 남쪽에 들어온 미군도 미국에 우호적인 정부를 세

을 준비를 하고 있었다.

이러는 사이에 독립운동가인 김구선생 등이 38도선을 넘나들며 통일정부를 세우려고 힘썼지만 효과가 없었다.

결국 1948년 8월 15일 남쪽에는 ‘대한민국’ 정부가, 바로 뒤이어 9월 9일에는 북쪽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이라는 한 나라에 두 개의 정부가 들어서게 되었다. 이어 12월 9일 유엔총회는 대한민국을 ‘한반도에서 유일 합법정부’로 승인하였다.

이렇게 해서 1945년 광복의 기쁨은 잠시였을 뿐 조국의 분단이라는 또 다른 비극을 맞이하였다.

게다가 1950년 북한의 남침으로 발발한 6·25전쟁으로 인해 3년여 동안 동족끼리 전쟁을 치루는 민족상잔의 대비극을 겪어야만 했으며, 이후 남북관계가 개선되기까지 남북한은 같은 민족이면서도 서로 ‘원수’ 처럼 대하는 적대관계를 벗어나지 못하게 된 것이다.

### 3. 민족동질성 회복이 중요하다

과거 남북한이 한 민족으로서 공유했지만 분단으로 인해

달라진 생활양식이나 언어 등의 공통점을 되살리는 것을 ‘민족의 동질성 회복’이라고 한다.

그러나 옛날로 돌아가기 보다는 서로 달라졌어도 좋은 점을 살리는 한편, 서로의 차이를 인정하고 이해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남북한이 문을 닫고 산다면 같은 것도 달라질 수 있으며 달라진 것은 더 달라질 수 있다. 따라서 남북한이 서로 터놓고 사람이 오가는 교류와 각 분야의 협력을 통해서만이 민족의 동질성을 회복할 수 있는 것이다.

특히 1990년대 이후 꾸준히 추진된 남북한 교류협력을 통해 서로를 이해하고 도우려는 움직임이 활발해진 것은 민족동질성 회복을 위해 좋은 일이다.



〈사진1〉 민족통일 대축전행사에서 남북한 참가자들이 어울려 줄다리기를 하는 모습

60년 이상 갈라져서 살고 있는 남북한이 쉽게 통일을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성급한 일이다.

민족동질성 회복을 위해서는 북한을 더 깊이 이해하고 북한 동포들이 어려울 때 도와주는 동포애를 길러야 한다.

옛날 말에 “사랑은 쇠도 녹인다”는 말이 있다. 남북한 동포의 사랑은 두터운 이념적 장벽도 허물고 휴전선의 철조망도 녹일 수 있다.





## II. 우리는 왜 통일을 이루어야 하는가?

### 1. 하나의 민족, 하나의 국가를 이루고 살아가기 위해

우리 민족은 5천여년 동안 한반도를 터전으로 하여 살아 왔으며, 신라 통일 이후 고려가 936년 재통일함으로써 한결 같이 하나의 민족, 하나의 국가를 지켜왔다.

그래서 우리는 ‘한민족공동체’ 라는 말을 자랑스럽게 사용하고 있으며, 통일을 한민족공동체의 건설이라고 보고 있는 이유도 여기에 있는 것이다.

그러나 1945년 광복에 이어 국토가 분단됨으로써 여러가지 민족적 비극이 시작되었다.

우리 민족이 통일해야 할 이유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사진2〉 6·26전쟁 당시 피난민 행렬

하나의 민족, 하나의 국가를 이루며 살아왔다는 것이다.

우리 민족이 비록 지금은 둘로 갈라져서 살고 있지만 언젠가는 꼭 통일을 이룩해야 한다는 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역사적 사명이다.

돌이켜 생각해 보면 6·25전쟁으로 많은 동포들이 죽고 다친 것은 말할 것도 없고 그 동안 육지·바다·공중에서 일어난 많은 충돌로 국민들을 불안하게 한 것도 남북한이 분단되어 살고 있기 때문이다.

통일이 된다면 서로 미워하고 갈등할 이유가 없어지게 되어 전쟁의 공포로부터 벗어나게 되고 온 민족이 평화롭게 살 수 있게 된다.

## 2. 분단의 고통을 덜고, 인도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분단과 6·25전쟁으로 인해 남북한에는 뜻하지 않게 1천 만명에 이르는 이산가족이 살아가고 있다. 그동안 우리 정부의 노력으로 이산가족 상봉이 있었지만 아직도 수많은 이산가족들이 편지 한 장 주고받지 못하고 있으며 생사조차 알 길이 없으니 이보다 더 슬픈 일이 어디 있겠는가?

부모형제와 하루만 떨어져 살아도 그리워지는 우리네 마음을 헤아려보면 남북이산가족의 슬픔이 얼마나 클 지는 짐작하고도 남는다.

우리는 금강산에서 열리는 남북이산가족 상봉행사에서 이산가족들이 서로 부둥켜안고 슬퍼하는 모습을 텔레비전을 통해 자주 보게 된다. 북에 두고 온 가족이 없는 사람도 그런 장면을 보면서 이산가족들의 아픔을 함께 경험하였을 것이다.



〈사진3〉 금강산에서의 이산가족 상봉 모습

이산가족들은 같이 살 권리가 있다. 이것은 인도적이며 동포애적인 문제이다. 흩어진 가족이 자유롭게 만나고, 오고 갈 수 있고, 함께 살 수 있게 하기 위해서 통일은 하루 빨리 이루어져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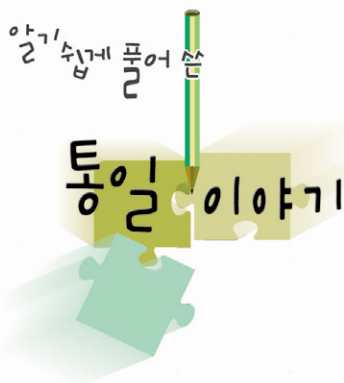
### 3. 자유와 인권이 보장되고, 온 민족의 행복한 삶을 위하여

통일이 되면 북한에도 우리와 함께 자유와 인간의 기본적인 권리를 충분히 누릴 수 있게 되는 등, 통일은 이 땅에서 자유와 인권이 보장되고 온 민족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기회를 가져다 줄 것이다.

전쟁이 없는 한반도에서 우리 민족 모두가 국가발전에 힘을 쏟는다면 정의가 넘쳐흐르고 민족 모두가 고루 평등하게 복지를 누리며 살 수 있는 선진 조국을 건설할 수 있을 것이다.

통일은 단순히 민족이 하나 되는 옛날로 돌아가자는 것이 아니라 미래를 향해 발전된 새로운 통일국가를 건설하자는 것이다.

통일은 우리 민족이 함께 행복하게 잘 살 수 있는 길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된다.







### III. 남북이 갈라져서 살아도 같은 것이 많다

#### 1. 명절은 우리와 다르지만 민속명절은 지켜지고 있다

##### 〈민속명절〉

북한은 명절을 ‘국가적 명절’, ‘경축기념일’, ‘국제경축일’, 그리고 ‘민속명절’로 나누고 있다. 이 중에서도 북한은 ‘태양절’이라고 부르는 4월 15일 김일성 생일을 ‘민족의 최대 명절’로 하고 있다.

‘민속명절’은 양력설과 음력설, 정월대보름, 그리고 한가위(추석) 등 전통적으로 지켜오고 있는 명절을 말한다. 민속명절은 1967년에 “봉건잔재를 뿌리 뽑아야 한다”는 김일성

의 지시에 따라 없애버렸으며 양력설 하나만 인정했다.

그러나 1972년 추석을 맞이하여 성묘를 허용하는 등 전통 명절을 부분적으로 부활시키기 시작하여 1988년에 추석을, 그리고 1989년에는 음력설·한식 등을 쇠게 하였다.

2003년부터는 양력설과 함께 음력설을 쇠고 있다. 그리고 정월대보름도 하루 쉬고, 단오와 추석은 각각 ‘수리날’과 ‘한가위’라 부르고 있다.

민속명절은 대부분 휴일로 하고 있으며, 설은 이틀간 쉬는 것이 보통이다. 최근에는 한식과 단오를 민속명절로 포함시키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 〈설〉

“까치 까치 설날은 어제께고요 / 우리 우리 설날은 오늘 이래요...”

설은 우리 민족이 다 같이 지켜온 명절이다. 북한에서는 양력 1월 1일을 ‘설’이라 하고, 음력 1월 1일은 ‘음력설’이라고 한다.

설에는 윷놀이·설매타기·팽이치기·연날리기·제기차기·장기 등 민속놀이를 하고, 별식으로는 떡국·만두국·

설기떡·찰떡·수정과·강정 등을 해 먹는다.

설에는 온 가족이 모여 차례를 지내는 것이 보통이고, 술과 음식을 가지고 산소에 가서 성묘를 하기도 한다.

북한에서는 설날에 단체별로 김일성동상을 참배한다. 그리고 친척이나 나이 많은 분을 찾아가 보통 “새해 축하합니다. 새해 만수무강 하십시오”라는 인사와 함께 세배도 한다. 가까운 친척이면 “너희들도 새해에 건강하게 잘 자라라” 하면서 적은 돈이지만 세뱃돈을 주기도 한다.

남북한은 처음에는 다같이 음력설을 공식화하지 않았으나 사람들이 음력설을 버리지 못하고 쇠기 때문에 마침내 이 날을 명절로 인정하기에 이르렀다.

### 〈추석과 한식〉

“달 달 무슨 달 쟁반같이 둥근달...”

추석은 설과 함께 우리 민족의 2대 명절이다. 추석무렵에는 가을걷이가 시작되고, 특히 북한지방은 계절이 빠르기 때문에 농사일이 한창 바쁠 때이다.

추석에는 가까이 사는 가족들이 한데 모여 즐겁게 지내는 데 집집마다 형편이 닿는 대로 음식과 떡을 장만하여 제사를 올리기도 하고 성묘도 한다.



한식에는 제사를 지내고 성묘를 한다. 한식은 4월 5일 식목일 무렵이므로 북녘에는 그때까지 눈이 녹지 않는 곳이 있는데, 그렇지 않은 지역에서는 거의 성묘를 하고 있다.

북한에서는 기차나 버스를 타고 멀리 갈 경우에는 보안성(경찰)에서 받은 통행증이 있어야 하므로 추석이라고 해서 마음대로 조상의 산소에 다녀올 수 없다.

북한에서 온 가족이 함께 모일 수 있는 날은 기껏해야 설과 추석, 부모 생신이나 제사날이다. 그러나 먼 곳에 있는 가족들은 모이기가 어렵다.

북한 동포들도 명절 때면 우리처럼 멀리 떨어져 있는 가족들이 한데 모여 풍성하게 음식을 차려놓고 즐겁게 보낼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마음이 간절하다.

## 2. 공중도덕과 예의범절은 지켜지고 있는 편이다

북한에서도 공중도덕이나 예의범절이 지켜지고 있는 편이다. 우리처럼 전통적인 도덕윤리관에 바탕을 두고 있고 북한이 폐쇄사회이다 보니 어떤 면에서는 우리보다 오히려 잘 지켜지고 있는 편이다.

조상과 노인에 대한 공경, 그리고 웃어른에 대한 바른 예절이 많이 강조되고 있다. 그리고 집단생활을 강화하기 위하여 이웃과 서로 돕고 사는 상부상조 정신도 강조하고 있다.

특히 퇴폐문화를 막는다고 옷차림이나 머리모양, 그리고 위생상태 등 정부가 개인생활까지 지도하고 있어 겉으로 보기에는 사람들이 매우 질서 있고 단정해 보인다.

그러나 경제가 어렵고 생활형편이 나빠지면서 이러한 공중도덕이나 예의범절도 많이 무너지고 있다고 한다.

우리사회도 개인주의적 경향이 심해지고 경쟁사회가 되다 보니 전통적인 미풍양속들이 허물어져 가고 있는 비슷한 현상을 보이고 있다.

### 3. 부모의 회갑이나 가족의 생일도 지키고 있다

나이가 60살이 되면 회갑(또는 환갑)이라고 한다. 그래서 부모님이 환갑에 이르면 음식을 잘 차리고 형제나 친척들이 한데 모여 축하하는 잔치인 ‘회갑연’을 갖게 된다. 우리사회에서는 평균수명이 늘어나면서 회갑연을 생략하고 간단히 생일잔치로 대신하는 경우가 많다.

북한은 1950년대까지는 경제적으로 어렵다는 이유로 회갑연을 갖는 것을 금지시켰다. 그러다가 1960년대 후반부터는 회갑연이나 돌잔치가 묵인된 듯 하다가 1970년대는 다시 국가에서 ‘60 청춘, 90 환갑’이라는 구호를 내걸게 되자 사람들이 회갑연 지내는 것을 꺼리게 되었다.

그러나 1990년대 이후에 와서는 간단하게나마 회갑연을 갖는 가정이 많이 늘어나고 있다. 특히 김정일위원장은 체제를 위해 공로가 많은 사람들에게는 ‘환갑상’이나 ‘칠순상’이라는 것을 내려 주고 있다.



〈사진4〉 김정일위원장이 차려준 100돌 생일상

생일은 가족이 함께 식사하는 자리를 마련하는 것으로 대신하고 있다. 비록 경제적 어려움으로 우리처럼 화려한 잔치를 하지는 못하지만, 가족간에 생일을 챙기고, 웃어른을 공경하는 풍습을 이어가는 것은 남북간에 큰 차이가 없다.

#### 4. 장례와 제사는 어떻게 지내고 있는가?

남쪽에서는 사람이 죽으면 대개 병원 장례식장이나 일반 장례식장에서 장례를 치른다. 그래서 큰 병원이나 지방 별로 대부분 장례식장을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북한에서는 아직도 이러한 시설이 부족하기 때문에 특수한 계층이 아니면 대개 가정에서 치르는 형편이다.

북한에서 장례는 사회주의 생활방식에 따라 간소화해서 치르도록 통제되고 있다.

북한에서는 장례가 우리처럼 ‘3일장’이 원칙이며 상복은 따로 입지 않고 주로 평상복에 검은 완장을 한다. 문상객(또는 조문객이라고도 함)은 상가를 방문할 때, 적은 금액이지만 나름대로 부의금을 준비한다.

장례식과 매장은 도시의 경우에는 ‘편의협동조합’ 등이 맡아서 처리하며 운구(죽은 이를 묘지로 운반하는 일)는 상여 대신에 트럭이나 달구지를 이용한다. 화장은 거의 없으며 북한에는 개인 소유의 산이 없기 때문에 공동묘지에 매장한다. 장례를 치른 가족은 공식적으로 3일간의 휴가를 받게 된다.

제사는 6·25전쟁 이후 물자 낭비 등의 이유로 금지되어

왔으나 가정마다 몰래 지내 왔다. 그러다가 1974년 김일성이 연설에서 “제사는 낡은 습관이며 음식을 차려놓고 절을 하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하면서 “제사날은 가족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경건한 마음으로 지내자”라고 한 이후 제사는 간소화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 5. 민속놀이도 잘 보존되고 있다

우리 민족이 하나라는 것은 남북한 동포가 같은 핏줄을 이어오고 있으며 역사를 같이하고 있다는 의미이다. 무엇보다 미풍양속이나 생활관습 등이 같다는 것이 이를 잘 말해준다.

우리 민족의 전통적인 민속놀이는 남북이 거의 같으며, 북한에서는 어떤 면에서는 우리보다 더 잘 지켜지고 있다.



〈사진5〉 북한의 대표적 민속놀이인 봉산탈춤(좌)과 북청사자놀이(우)

6·25전쟁 이전에는 민속놀이가 그대로 전승되었다. 그 대표적인 것으로는 널뛰기·윷놀이·연날리기(음력설)·농악무·북청사자놀이·봉산탈춤 등을 들 수 있다.

1950년대에 와서는 민속놀이가 농업생산을 높이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되었다. 특히 농악은 각종 국경일과 명절에 많이 이용되고, 노동자들이 좋아하는 씨름·그네타기·줄다리기 등이 장려되었다.

1960년대 이후에는 이러한 민속놀이가 군중의 집단놀이 형태로 많이 변형되었다. 전투력을 향상하고 반미 적개심을 높인다는 목적으로 활쏘기가 장려되고, 씨름과 그네타기를 민속경기로 채택하게 되었다.

시대에 따라 강조되는 민속놀이가 있어 왔으나 북한에서 민속놀이가 잘 보존되고 있는 데는 놀이감이나 놀이시설이 별로 없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IV

남북이 갈라져 살다 보니  
달라진 것도 있다 ▶▶▶▶▶▶▶▶▶▶





## IV. 남북이 갈라져 살다 보니 달라진 것도 있다

### 1. 남북한은 이념과 체제가 서로 다르다

아무리 '우리는 하나' 라고 해도 남북한은 엄연히 사상과 체제를 달리하고 있는 사실상 '두 개의 국가' 이다. 통일에 가장 큰 걸림돌은 이 사상과 체제의 다름에 있다고 할 것이다.

남한은 정치적으로 '자유민주주의' 이념을, 경제적으로는 '시장경제체제' 를 채택하고 있다.

북한은 정치적으로 '주체사상' 을 토대로 한 공산주의를, 경제적으로는 '계획경제체제' 를 채택하고 있다.

우리 정부는 남북한이 이렇게 다른 이념과 체제속에서 살



고 있기 때문에 통일에 이르기까지는 단계적으로 하나씩 풀어가자는 통일정책을 펴고 있다.

즉 통일을 서두르기에 앞서 남북한간 경제·사회·문화 등 여러 분야에서 자연스러운 교류와 협력을 통해 평화공존과 공동번영의 토대를 마련해 나가는 것이 무엇보다 필요한 것으로 삼고 있는 것이다.

## 2. 재산의 소유제도가 서로 다르다

남한에서는 누구나 개인재산을 가질 수 있는 ‘사유재산제도’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개인의 능력에 따라 자유롭게 재산을 가질 수 있고, 이로 인해 부자와 가난한 사람이 생기게 마련이다. 또한 직장에서 임금을 받고, 사업을 통해 소득을 얻기 때문에 벌이가 다양해 질 수밖에 없다.



〈사진6〉 북한 신발공장의 여성 노동자

북한에서는 원칙적으로 개인이 생산수단을 소유할 수 없는 사회이며, 개인소유는 개인적 소비나 살림살이에 쓸 물건 정도이다. 기업이나 공장은 국가만이 가질 수 있고, 농토는 협동화되어 있어 개인이 소유할 수 없다.

기업에서 일하는 노동자·사무원도 형식적으로는 임금을 받지만, 이런 임금을 가지고 상점이나 매대에서 자유롭게 물건을 살 수는 없다. 농민은 협동농장에서 일하고, ‘노력공수’(개인별 성적)에 따라 식량으로 ‘분배 몫’을 받는다.

북한은 부자와 가난한 사람이 없는 ‘평등한 사회’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실제는 높은 지위와 낮은 지위에 따라 정치적으로 특권층이 따로 있고, 임금이나 배급·주택 배정 등 사회적 대우에 있어서도 차이가 나는 불평등 사회이다.

더구나 사유재산제도가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일하는데 있어서도 창의력과 경쟁력이 떨어지고 주인다운 태도가 부족하다는 단점이 있다.

### 3. 말이나 글도 많이 달라졌다

우리는 한글을 자음과 모음을 합쳐 모두 24자로 정하고 있다. 반면에 북한은 우리와 달리 자음과 모음 24자에 자음

의 ‘된소리’ 5자와 ‘이중모음’ 11자를 합쳐 모두 40자로 하고 있다. 그러나 자음과 모음의 숫자만 다를 뿐 그 구조는 우리와 마찬가지로이다.

품사의 경우 우리는 명사·대명사·수사·조사·형용사·부사·감탄사 등 9개로 나누고 있으나 북한은 우리와는 달리 ‘조사’를 빼 8개의 품사를 두고 있다.

표준말에 있어서도 우리는 “중류층 사회에서 쓰는 서울말”을 중심으로 하고 있으나 북한은 ‘문화어’라고 하여 ‘혁명의 수도 평양을 중심으로 하여 노동계급이 주로 쓰는 말’로 하고 있다.

남 한	북 한	남 한	북 한
금관약기	쇠간약기	현약기	줄관약기
살균	병균 죽이기	멸균	병균 깡그리 죽이기
위(동물)	먹이주머니	어류학	물고기학
풍파	바람물결	난류	더운 물 흐름
비커	실험고뿌	카스테라	설기과자
드레스	나리옷	리본	꽃명기
아이스크림	얼음보숭이	도화지	그림종이
라이트닝	오른쪽공격수	서브	던지기볼
뮤지컬	가무이야기	거위	게사니

〈표\*〉 남북한 언어 비교

## 4. 신앙생활도 다르다

공산주의는 원래 ‘종교는 일종의 미신’이라 하면서 원칙적으로 종교의 자유를 인정하지 않는다. 그러면서도 북한은 헌법에 종교의 자유를 규정하고 있다.

북한은 이러한 공산주의 종교관에 따라 1955년까지 모든 종교단체와 종교의식을 없애버림으로써 1960년대에는 북한 지역에서 종교 자체가 모습을 감추게 되었다.

그러나 1972년 남북대화를 계기로 북한에도 종교의 자유가 있는 것처럼 보이기 위하여 그동안 이름뿐이었던 ‘조선그리스도연맹’ 등 종교단체가 다시 활동을 시작하면서 종교정책도 변하게 되었다.

그동안 북한은 종교정책의 변화와 함께 묘향산의 ‘보현사’를 비롯한 절을 개방하고 남북한이 공동으로 석탄절 행사 등을 갖기 시작했다.

1988년에는 평양에 ‘장충성당’과 ‘봉수교회’를 세웠고, 그 다음 해에 ‘칠골교회’를 세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나 사찰 이외에서의 신앙생활은 엄격히 금지되고 있으며, 성경이나 찬송가 등 종교서적이나



〈사진7〉 북한의 봉수교회에서의 예배 모습(좌)과 보현사 전경(우)

성물들도 만들거나 팔지 못하게 하고 있다.

1990년대에 들어 경제가 어려움을 겪게 되자 남한의 종교단체들이 북한돕기에 적극 나서고 있으며, 이런 종교단체의 교류와 협력은 남북한이 화해하고 서로를 이해하는데 도움을 주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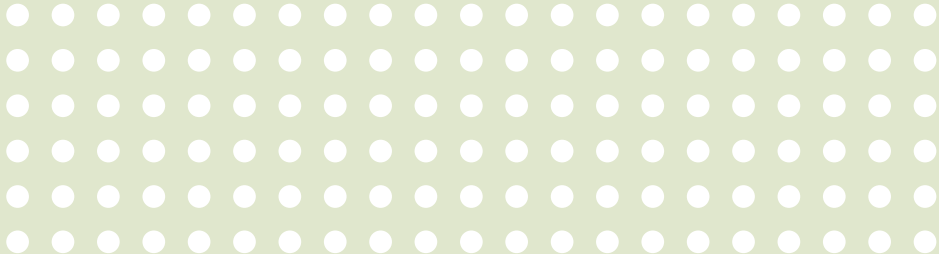
알기 쉽게 풀어 쓴  
통일 이야기



통  
일  
이  
야  
기

V

## 통일을 이룬 나라들을 알아보자





## V. 통일을 이룬 나라들을 알아보자

### 1. 독일 통일 : 가장 평화적이며 민주적으로 이루어졌다

1989년 11월 9일 공산주의와 자유민주주의를 배경으로 한 냉전의 산물인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고, 그 후 1년도 안된 1990년 10월 3일 평화적이며 민주적인 절차에 따라 독일은 통일을 이루었다.



<사진8> 베를린 장벽



서독 정부가 동독에 대하여 ‘접촉을 통한 변화’를 내세워 동서독간의 교류와 화해협력을 추진했던 점이 독일통일의 가장 중요한 원동력으로 꼽히고 있다.

통일될 때까지 동서독 사이에는 전화나 우편물이 자유롭게 교환되었다. 1980년대 이후 해마다 8~9백만 명의 사람들이 거의 자유롭게 왕래하였다.

매년 8만 명의 학생들이 수학여행 등의 명목으로 상대방 지역을 여행하는 등 활발한 교류가 이루어졌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독일통일의 기반이 닦아지게 된 것이다.

그러나 통일이 갑작스럽게 이루어짐으로써 독일경제가 어렵게 되고 동서독 주민들간의 경제적·사회적·심리적 갈등이 커졌다는 점은 우리가 교훈으로 삼아야 할 일이다.

## 2. 예멘 통일 : 평화통일→내전→무력에 의한 통일로 이루어졌다

예멘은 아라비아 남쪽에 위치한 국가로 유럽-아시아-아프리카를 연결하는 중요한 위치에 자리 잡고 있다. 예멘이 강대국의 식민지 통치에서 벗어나 독립국가를 만들어 가는 과정에서 남북으로 갈라진 점은 우리와 비슷하다.

남북예멘이 서로 정통성을 주장하면서 상대방을 통합하려는 다툼을 쉬지 않았으며, 이로 인한 크고 작은 전쟁이 끊이지 않았던 점도 우리와 비슷하다.

이런 가운데 1989년 남북예멘은 정상회담에서 통일헌법을 승인하고 1990년 5월 통일을 선포함으로써 남북예멘 정부의 합의에 의해 평화적 통일을 일단 이룰 수 있었다.

그러나 남예멘 지도자들은 그들의 정치적 목적 달성이 어렵게 되자 다시 분리 독립을 기도하였다. 이런 가운데 1994년 남북예멘 사이에 내전이 벌어졌으며 이로 인해 7천여 명의 사상자를 내고 북예멘이 승리함으로써 남북예멘은 다시 통일을 이루게 되었다.

예멘은 평화적으로 통일을 이루었으나 내전을 거쳐 무력으로 다시 통일을 이룬 경우이다.

여기서 우리가 얻어야 할 교훈은 두 지역 주민들의 의사와 관계없이 정치적 협상에 의해 통일을 했기 때문에 다시 내전을 몰고 왔다는 점이다.

### 3. 베트남 통일 : 북베트남에 의한 무력통일이였다

베트남은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프랑스의 식민지에서 벗어나 1945년 9월에 베트남민주공화국을 선포함으로써 일단 통일국가로 출발할 수 있었다.

그러나 식민지 종주국이었던 프랑스가 다시 인도차이나에 복귀를 시도함에 따라 1946년 말 프랑스와 베트남간에 전면적인 전투가 시작되었다.

8년간 계속된 제1차 베트남전쟁은 1954년 제네바 협정으로 끝나기는 했으나 베트남은 남북으로 갈라지게 되었다. 북쪽은 공산정권이, 남쪽은 미국의 지원을 받는 정권이 들어서게 되었다.



〈사진9〉 베트남 지도

분단 후 북베트남은 남베트남 해방을 목표로 군사력을 증강함과 동시에 남베트남 내 공산주의 세력과 동조세력을 묶어 '남베트남 민족해방전선' (베트콩)을 결성하였다.

베트콩은 남베트남 정부를 뒤엎기 위해 게릴라전을 벌였으며 미국은 남베트남 정부를 군사적으로 지원하였다. 그러나 북베트남군의 총공세로 1976년 4월 30일 남베트남 수도 사이공이 공산군의 손에 들어감으로써 통일이 되었다.

우리는 6·25전쟁을 겪어서 알고 있듯이 베트남의 무력통일에서 “아무리 통일이 중요하다고 하더라도 많은 생명과 재산을 잃게 되는 전쟁에 의한 통일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교훈을 새삼 되새겨 보아야 할 것이다.

#### 4. 중국과 대만 : 무력대결보다 교류·협력으로 평화공존하고 있다

중화민국은 1911년 신해혁명으로 탄생되었다. 중화민국은 중·일 전쟁과 마오쩌둥이 이끄는 공산군과의 내전(국·공 내전)이 겹쳐 세력이 급속도로 약화되었다.

1945년 일본이 연합군에 항복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국·공 내전에서 1949년 8월 마오쩌둥이 이끄는 공산군이 본토를 완전히 장악하자 장제스가 이끈 중화민국 군대(국부군)는 대만으로 쫓겨나고 말았다.

그리고 마오쩌둥이 1949년 10월 본토에서 ‘중화인민공화

국'이라는 공산정권을 탄생시킴으로써 중국은 대만으로 밀려난 장제스 정권인 '중화민국' 과 둘로 갈라지게 되었다.

둘로 갈라진 이후 중화인민공화국 정부는 대만에 무력을 써서라도 통일하겠다고 으름장을 놓는가하면, 대만정부인 중화민국 정부는 본토 수복을 내세우며 대결하였다.

1980년대에 들어와 중국은 대만과 더불어 살아가는 정책을 취하기 시작하였다. 1981년에는 교류협력을 추진하게 되었으며, 아울러 대만에 대해 무력을 사용하지 않을 것을 선언함으로써 중국과 대만관계는 아주 빠르게 좋아지게 되었다.

이에 따라 중국과 대만 사이에 사람들의 왕래가 크게 늘어나고 있으며 대만 경제인들은 중국본토의 경제건설에도 많이 투자하고 있다.

그러나 중국이 '하나의 중국' 을 주장하고 있어 통일문제를 둘러싸고 중국 정부와 대만정부 사이에 긴장은 계속되고 있다.

## 5. 우리가 얻어야 할 교훈

우리는 앞에서 분단된 나라의 통일과정이나 현재 분단된 나라의 사정을 살펴 보았다.

독일통일은 평화적 방법과 민주적 절차에 따라 이루어진 점을 우리는 본받아야 한다. 다만 성급한 통일은 통일정부에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주게 되며, 남북한 주민들 사이에 갈등을 일으킬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예멘의 통일에서는 전체 국민들의 의사와 관계없이 정치인들이 협상을 통해 통일했을 때 갈등이 사라지지 않고 내전이 일어날 수 있다는 점을 알게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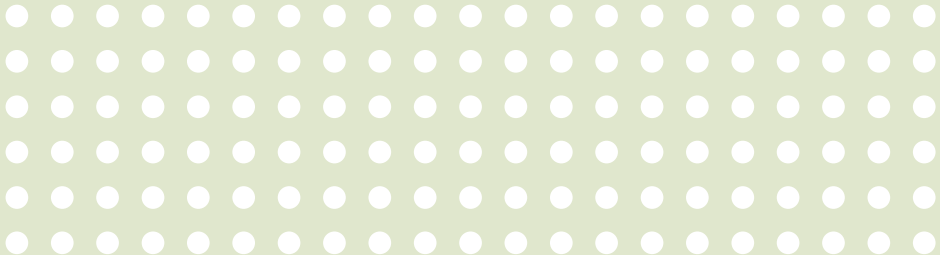
베트남은 전쟁을 치르면서 통일을 이루었지만 많은 사람이 죽고 엄청난 파괴가 따랐다는 점을 생각할 때, 전쟁에 의한 통일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더욱이 6.25 전쟁을 경험한 우리로서는 더욱 뼈저리게 생각할 문제다.

중국과 대만의 경우는 정치·군사적으로는 긴장하고 있으나 그 밖의 경제·사회·문화면에서는 교류협력이 활발해짐으로써 분단은 되었으나 분단의 고통을 거의 극복할 수 있는 '사실상의 통일 상황'을 이루고 있음을 눈여겨 볼 필요가 있다.

우리는 남북한이 교류와 협력을 통해 경제·문화적 공동체의 토대를 다지고, 이러한 바탕위에서 남북주민의 의사를 반영하여 통일을 이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교훈을 얻을 수 있다.

VI

우리는 어떻게 통일하려 하는가,  
그리고 현재의 남북관계는?





## VI. 우리는 어떻게 통일하려 하는가, 그리고 현재의 남북관계는?

### 1. 우리의 통일정책 내용

#### (1) 우리의 통일정책은 어디에 뿌리를 두고 있는가?

우리의 통일정책과 통일방안은 시대와 환경에 따라 변화해 왔다. 그러나 그 뿌리는 크게 변하지 않고 있다.

우리의 통일정책과 통일방안에서 한결같이 지켜온 뿌리는 첫째, 통일은 평화적 방법과 민주적 절차에 따라 이루어져야 하며, 둘째는 민족구성원 모두에게 자유와 인권 그리고 번영이 보장되는 통일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통일이 아무리 우리의 소원이고 중요하다고 하더라도 통일하는 과정에서 폭력이나 전쟁에 의하지 않고 평화적인





〈사진10〉 제19차 남북장관급회담

방법과 민주적 절차에 따라 통일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통일이 되어 민족 모두가 자유를 누리며 개개인의 인권이 존중되는 그런 사회가 되어야 할 것이다.

통일을 이룬다고 해서 당장 국가가 발전하는 것은 아니다. 독일통일에서 보았듯이 상당기간 혼란과 경제적 어려움도 겪을 수 있다. 그러나 한반도가 통일이 되어 남북한 동포가 힘을 합쳐 나간다면 국가발전의 속도는 빨라질 수 있다.

## (2) 평화번영정책의 목표는 무엇인가?

참여정부가 내세운 평화번영정책의 첫째 목표는 ‘한반도 평화 증진’에 있다.

자유민주주의 세계와 공산주의 세계로 나뉘어 서로 갈등

하고 대립하던 ‘냉전시대’에 남북한은 서로 갈등하고 대결하여 왔다.

그 결과 남과 북은 갈등과 대립 속에서 불안한 평화를 유지하여 왔으며 남북한 주민들은 언제 터질지 모르는 전쟁을 걱정하면서 살아왔다.

그러나 공산권이 무너져 냉전시대가 끝나고, 남북간에는 새로운 관계를 형성하지 않을 수 없게 된 것이다.

특히 ‘국민의 정부’는 2000년 6월 ‘남북정상회담’을 계기로 ‘6·15선언’을 일구어 냄으로써 한반도에 평화를 정착시킬 수 있는 새로운 기회를 만들어 내게 되었다.

평화번영 정책의 둘째 목표는 ‘남북한과 동북아시아의 공동번영’에 있다. 시대적 흐름에서 볼 때 우리는 한반도라는 틀에만 머무르지 않고 눈을 돌려 보다 큰 세계와 동북아시아



〈사진11〉 한반도와 대륙으로 이어지는 횡단철도 노선도

차원에서 번영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한반도는 지리적으로 볼 때 대륙과 해양을 연결하는 '다리' 역할을 할 수 있으며, 아시아와 세계의 '중추(중심)국가'로 뛰어오를 수 있는 무한한 가능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 (3) 통일정책은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가?

노무현 대통령은 2003년 2월 25일 취임사에서 참여정부의 대북정책으로 '평화번영정책'을 내놓았다.

평화번영정책은 한반도에서 평화를 증진시키고 남과 북이 공동으로 번영을 일구어나감으로써 평화통일의 기반을 다지고 동북아시아의 경제중심으로 발전하는 기틀을 마련하고자 하는 국가발전전략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이웃나라와 협력하여 북한의 핵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무엇보다 필요하다. 이를 바탕으로 남북한이 서로 협력해 나가고, 군사적인 면에서도 서로에 대해 신뢰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나가야 한다.

나아가 남북한이 공동으로 번영의 길을 찾음으로써 평화통일의 실질적 기반을 마련하고, 한반도가 동북아시아의 경제중심으로 발전해 나가야 한다.

## 2. 평화번영정책의 성과

### (1) 통일을 향한 실질적인 남북대화가 이루어지고 있다

- ◆ ‘남북장관급회담’, ‘남북장성급군사회담’, ‘남북경제협력 추진위원회’ 등 각급 남북대화는 2000년 6·15공동선언이후 176회가 열렸고 ‘참여정부’ 출범 이후에만도 80회가 열렸다.



〈사진12〉 판문점 통일각에서 열린 남북장성급군사회담(2006)

### (2) 남북교역 10억 달러시대가 열렸다

- ◆ 남북교역은 2005년에 10억 달러를 돌파한데 이어, 2006년에는 13억 4천여만 달러를 기록하였다.

### (3) 학술교류·종교인 교류 등 남북왕래도 활발해지고 있다

- ◆ 남북한을 왕래한 사람은 2006년 한 해만도 분단이후 2004년까지의 왕래 인원(85,000명)을 훨씬 넘어선

10만 8천여명을 기록하였다.

- ◆ 금강산 관광을 포함하면 하루 평균 1,200명이 남북을 왕래하고 있는 셈이다.

#### (4) 이산가족의 만남도 여러가지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다

- ◆ 2000년 8월 이후만 보더라도 이산가족끼리 서로 만난 ‘대면상봉’ 13회, 화면을 통해 서로 만나는 ‘화상상봉’ 4회, 편지를 주고받은 ‘서신교환’ 1회, 생사확인도 2회나 시범적으로 실시되었다.
- ◆ 6·15선언 이후부터 2006년 12월까지 가족상봉은 모두 14회이며, 상봉자도 1만 6천여명을 넘어섰다.
- ◆ 이밖에도 화상상봉은 총4회 1,876명이며, 생사·주소 확인 39,217명, 서신교환 679명에 이른다.



〈사진13〉 이산가족들의 화상 상봉 모습

### (5) 휴전선을 넘어 남북 철도·도로가 연결되었다

◆ 1945년 광복이 되기 전에는 서울과 신의주를 잇는 '경의선'에 기차가 달렸다. 해방직후에도 기차가 달렸으나 분단 이후, 철도나 도로는 영영 끊기고 말았다.

◆ 6·15 공동선언 이후 남북은 2002년 9월 18일, 분단 50년 만에 역사적인 '경의선'과 '동해선' 철도와 도로 연결 착공식을 가졌다.

◆ 남북한 도로는 2004년 10월에 완성되어 개성과 금강산으로 하루에 수 백대의 자동차가 오가고 있으며, 사람도 하루 1천여명이 육로를 통해 북한을 방문하고 있다. 철도는 레일(궤도)부설공사가 끝나고 언제든지 개통될 수 있는 상태이다.

◆ 남북한에 철도가 개통되면 북한을 지나 중국과 시베리아 철도를 통해 유럽까지 갈 수 있게 된다. 그렇게 되면 우리



〈사진14〉 경의선(좌)과 동해선(우)궤도 연결 행사장

의 수출품이 배로 운반되는 것보다 훨씬 빨리, 그리고 보다 저렴한 물류비용으로 유럽으로 수출될 수 있다.

- ◆ 도로와 철도의 연결은 휴전선에 가로 놓인 철조망을 걷고 자동차와 기차가 달리게 되어 그만큼 전쟁의 위험이 줄어들게 된다.

## (6) 금강산관광도 하루만에 다녀올 수 있게 되었다

- ◆ 세계적으로 이름난 금강산이 1998년 11월 처음으로 남쪽 사람들에게 개방되었다. 2005년 6월에는 금강산 관광객이 100만 명을 돌파하였다.
- ◆ 2006년 한 해 동안만 해도 금강산 관광을 다녀온 사람이 234,446명에 이르렀다. 지금까지 다녀온 사람은 모두 1,389,690명에 이른다.



〈사진15〉 금강산 육로관광 차량 행렬



- ◆ 금강산에서는 이산가족들의 만남을 비롯해서 남북 간의 여러가지 공동행사들도 자주 열리고 있다. 그래서 사람들은 금강산을 ‘화합의 장’ 이라고 부른다.

### (7) 함께 잘 살기 위한 ‘개성공단’ 건설도 잘 진행되고 있다

- ◆ 고려의 도읍지 개성은 유서 깊은 곳으로 6·25전쟁 이전에는 남한지역이었으나 휴전과 함께 북한지역으로 남게 되었다.
- ◆ 개성은 휴전선과 가까이 있는 지역이어서 북한의 군사 시설이 팍 들어찼던 지역이다. 이곳에 남북한이 공단 건설을 합의하고 공사를 진행한 것은 큰 의미가 있다.



〈사진16〉 개성공단의 야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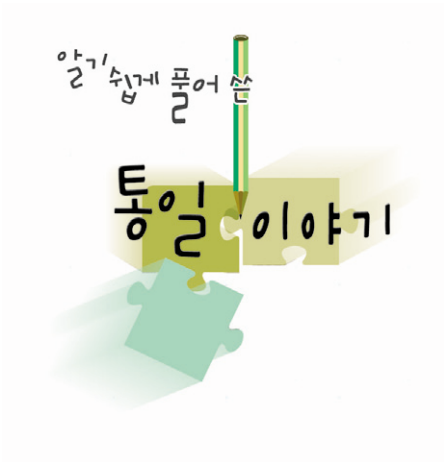
- ◆ 개성공단은 2003년부터 2007년까지 목표로 현재 1단계 100만평 공사가 진행 중에 있다. 이중 1차적으로



시범단지에 이미 21개 공장이 들어섰으며, 이들 공장에서 제품을 생산하여 남쪽과 해외에 물건을 내다 팔고 있다.

- ◆ 개성공단에서는 현재 북한 근로자 1만 2천 여명과 우리 근로자 7백 여명이 한데 어울려 일하고 있다. 이들의 모습에서 우리 민족도 힘을 합치면 보다 잘 살 수 있다는 것을 보여 주고 있다. 그래서 개성공단을 ‘남북협력의 장’ 또는 ‘민족 공동번영의 장’ 이라고 말하고 있다.

- 남북 간에 서로 왕래하고 교류하고 협력하면서 더불어 살아가는 것은 곧 ‘작은 통일’이며,
-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한민족이 하나가 됨으로써 ‘큰 통일’을 이룩할 수 있는 것이다.







## VII. 북한은 변하고 있는가?

### 1. 남과 북의 경제력은 이렇게 달라졌다

남과 북은 분단으로 인해 경제 권역도 남북한 둘로 갈라지게 되었다. 우리나라는 분단이전에는 ‘남농북공’이라 할 정도로 공업은 북한지역에서 발달하고 남한은 농업을 주로 하였다. 따라서 광복 당시 공장은 주로 북한지역에 있었고, 남한에는 공장다운 공장이 거의 없었다.

그러나 남한은 ‘60년대 들어와 경제개발계획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90년대 후반에 선진국 대열에 진입하게 되었고, 경제력도 세계 10위권에 들 수 있게 되었다. 반면에 북한은 ‘70년대 이후 경제침체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며 우리와의 경제력 차이도 더욱 커지고 있다.

북한이 경제적으로 뒤지고 있는 것은 무엇보다 사회주의 경제체제의 모순과 개혁·개방을 꺼리고 있는데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다.

2004년 말 현재 남북한 경제규모를 비교해 보면 전체 국민소득은 남한이 6,824억 달러로 북한의 208억 달러보다 32.8배나 앞서고 있다. 따라서 1인당 국민소득도 남한이 14,193만 달러인데 비해 북한은 914달러로 우리가 15.5배나 앞서고 있다.

무역총액도 남한은 5,457억 달러인데 북한은 30억달러로 우리가 무려 181.9배나 앞서고 있다. 이것만 보아도 북한은 얼마나 외화가 부족한가를 알 수 있다.

전기 발전량도 남한은 3,646억 kwh인데 북한은 215억 kwh로 우리가 17.0배나 앞서고 있다. 북한은 전력이 부족하여 공장에서 제대로 기계를 돌리지 못하고 있는가 하면, 가정에서는 전기를 쓸 수 있는 시간도 제한하고 있다.



〈사진17〉 남한의 명동거리(좌)와 북한의 평양거리(우)

쌀 생산량을 보면 남한은 476만 톤으로 먹고도 남는데 북한은 202만 톤으로 만성적인 식량부족에 시달리고 있다. 비료생산도 남한은 146.1만 톤인데 북한은 45.0만 톤으로 농사짓기에 턱없이 부족하다.

따라서 우리는 남는 식량과 비료를 북한에 보내주어 북한 동포들의 어려운 식량사정을 풀어주고 식량생산을 도와주고 있다.

옷감을 만드는 화학섬유도 남한은 165.5만 톤을 생산하고 있는데 북한은 2.8만 톤으로 입는 문제도 제대로 해결 못하고 있어 우리에게 옷감을 지원해 달라고 요청하고 있는 실정이다.

북한 동포들이 경제적으로 어려울 때 도와주는 것은 곧 동포에 대한 사랑이며 통일의 길을 닦아나가는 것임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



〈사진18〉 남한에서 보내준 쌀을 나르고 있는 북한 주민들

## 2. 남한 동포를 미워하고 적대하는 감정이 줄어들고 있다

그동안 남북간 교류와 협력을 통해 남북한 동포들이 자주 만나 어울리고 있으며, 금강산관광으로 남북한 동포들이 같이 만나는 기회도 많아졌다.

개성공단에서는 1만여 명의 남북한 근로자들이 어깨를 맞대고 함께 땀 흘리면서 열심히 일하고 있다.

북한 동포들이 아무리 닫힌 사회에서 살고 있다지만 그들도 남한 소식을 듣고 있고 우리가 평화를 원하고 통일을 바라도 있다는 것을 알고 있을 것이다.

그동안의 남북교류협력을 통한 남북한 신뢰와 대북지원 등에 힘입어 북한 동포들이 남한 사회를 이해하고, 고마움을 표시하게 되었다.

이러한 생각은 남한에 대한 적대감정을 점차 줄어들게 만들어 나감으로써 남북한이 화해하는데 도움을 주고 있다.

## 3. 남한 동포들의 사는 모습을 부러워하고 있다

한국은 이제 세계에서 10위권에 들 정도로 경제가 발전하고 있으며 선진국 대열에 뛰어 들고 있다. 북한 동포들은 여

러 통로를 통해 남한의 발전상을 알고 있으며 부러워하고 있다.

우리가 보낸 쌀이 북한의 식량난을 덜어주고 있고, 우리가 보낸 비료로 농사를 짓고 있다.

그리고 민간단체의 지원으로 병원이 세워지고, 어린이들을 위한 우유공장·빵공장이 세워져 많은 어린이들의 건강을 도와주고 있다는 것도 널리 알려져 있다.

홍수 피해가 있으면 우리 정부와 민간단체는 정성껏 북한 동포들을 도우려 노력하고 있다.

북한주민들은 평양을 오고 가는 남한 사람들과 금강산 관광객들을 보고 남한 동포들은 잘 살고 있으며, 여행도 마음대로 하고 있구나 하고 부러워한다.



〈사진19〉 북한의 고려항공을 타고 평양관광을 나서는 사람들



중국에 드나드는 북한동포들은 중국에 사는 동포들이 서울에 갔다 온 자랑을 통해 남한동포들이 잘 살고 있다는 것도 알고 있다.

#### 4. 자본주의 시장경제를 서서히 알기 시작하였다

북한은 철저한 사회주의 통제경제로 경제의 주체가 국가이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주민들은 자본주의 시장경제에 대해서는 잘 몰랐으나 최근 들어 초보적인 수준의 자본주의 시장경제를 서서히 알기 시작하고 있다.

북한에서는 원래 5일장과 같은 '장마당'을 금지시켰으나 완전히 없어지지 않는 않았다. 그러다가 경제가 어려워지자 도시와 시골에서 우리의 5일장이나 반짝시장과 같은 '장마당'이 여러 곳에서 생겨나고 당국에서도 이를 묵인해 주었다. 그리고 큰 도시에서는 장마당을 '종합시장'으로 만들고 있다.

이 장마당에는 집안에서 키운 닭이나 토끼·거위·염소·개 같은 것을 팔러 나오고, 텃밭에서 가꾼 채소들이 팔리고 있다. 그리고 이제는 금지되었던 식량도 나오고 있으며 공산품까지 팔리고 있다. 돈이 되는 것은 무엇이든지 팔려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는 것이다.

최근에 와서 북한사람들은 당원이나 국가기관보다 ‘돈 잘 버는 직업’을 더 알아준다고 한다. 외항선원이나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돈을 벌 수 있는 트럭 운전기사가 인기직업으로 떠오르고 있는 것이다.

또한 이전과 달리 돈에 대한 인식이 달라지고 부자가 되는 것도 자랑이다. 따라서 직장을 그만두고 장마당에 나가 빵장사나 음식장사에 나선 사람들이 점차 늘고 있다.

## 5. 집단생활보다 개인생활에 더 눈을 돌리고 있다

북한 헌법에는 ‘하나를 전체를 위하여’라는 집단주의 원칙을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다보니 사람들은 개인생활보다 단체생활이나 조직에 얽매인 집단생활에 익숙해져 있다.



〈사진20〉 북한 어린이들의 설맞이 공연 모습

어른들은 각종 사상교양이나 회의에 얽매여 산다. 학생들은 학교수업이 끝나도 소년단 생활이나 토끼·닭 기르기 등 단체생활을 하기

때문에 좀처럼 개인생활을 갖기 힘들다.

최근에 와서는 사람들이 집단생활보다 개인생활에 더 눈을 돌리고 있으며, 경제가 어려워지면서 사회 통제도 많이 느슨해졌다고 한다.

이런 가운데 어른들은 사상교양이나 회의 참석 등에 대한 열성이 식어가고 있으며, 학생들은 컴퓨터나 운동 등을 통해 개인생활을 즐기려는 경향이 늘고 있다고 한다.

그러나 컴퓨터 보급이 거의 안 되고 운동도 집단적으로 하기 때문에 개인의 취미생활이라든가 소질에 따른 과외활동은 아직은 쉽지 않다.

## 6. 바깥세상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북한사람들도 비록 제한적이기는 하지만 중국에 살고 있는 친척들을 방문할 수 있으며, 중국의 친척들도 북한을 방문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가지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나 중국과 남한에 대한 소식을 듣게 된다.

또 중국에 사는 동포들이 보따리 무역을 위해 북한을 드나들면서 바깥세상 소식을 전하게 되고 해외동포들이 고향을

방문해서 전하는 소식도 있다.

우리의 쌀과 비료·구호품들이 북한에 들어가고 있음을 알고 있기 때문에 북한 당국도 더 이상 “남한은 못살고 굶주린다”는 선전을 하지 않는다고 한다.

그리고 지위가 높은 사람들은 남한의 방송이나 미국에서 보내는 한국말 방송을 귀담아 듣고 있다고 한다.

심지어는 한국의 대중가요 테이프가 몰래 돌아다니고 있으며 남한의 연속극 테이프도 몰래 돌려가면서 즐기고 있다고 한다.

## 7. 통제사회가 점차 느슨해지고 있다

북한에서는 다른 지역으로 여행할 때는 반드시 인민보안성(경찰)에서 내주는 ‘여행증’을 받아야 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래야만이 기차표나 버스표·선표를 살 수가 있다.

그러나 식량난이 심각해 지면서 주민들이 식량을 구하기 위해 돌아다니기 때문에 보안원도 어쩔 수 없이 이를 단속하지 못하고 놔둘 수밖에 없는 형편이다.

공장이나 각급 기관에서도 식량을 구하러 간다면 눈감아

준다고 한다. 그렇지 않아도 공장이 문을 닫고 있는 형편에 '빈둥빈둥' 노는 것보다 식량을 구하고 돈을 벌겠다고 나서는데 굳이 막을 필요가 없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의 강점이라 할 수 있는 통제사회가 매우 느슨해지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여행증이나 식량배급표가 없으면 다른 지역에 가서 여관에 들 수 없고, 밥도 사먹을 수가 없다. 북한은 통제사회가 무너지면 사회주의체제도 무너질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계속 통제사회를 유지하려 하고 있다.

북한은 이런 걱정 때문에 바깥 세상에 문을 열지 못하고, 여행도 제한하고 있는 것이다.

## 8. 북한도 경제개혁과 농업개혁을 조심스레 시도하고 있다

북한은 2002년 7월에 이른바 '경제관리 개선조치'라는 것을 발표하여 임금(월급)을 올려주고, 물가를 현실화하고 배급제를 폐지하는 등 새로운 경제 제도를 도입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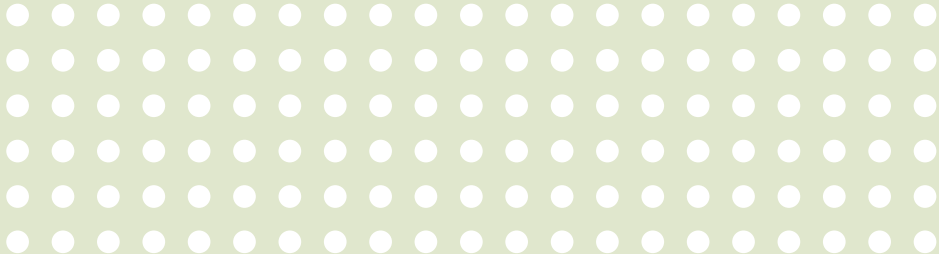
비록 국가소유의 기업이기는 해도 경영에 대한 자율권을 많이 주고, 농업에 있어서도 성과에 따라 차등을 두어 분배하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조치로 공장이나 기업소 뿐만 아니라 서비스업이나 농업에서도 서로 경쟁을 하게 되어 생산성도 높아지고 근로자나 농민들의 생산의욕을 돋구게 되었다.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임금이 따라가지 못하고 공장에서 물건을 제대로 만들어 내지 못하여 물가가 너무 높이 치솟고 있는 것이 큰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 한반도와 관련된 여러가지 문제





## VIII. 한반도와 관련된 여러가지 문제

### 1. 북한의 미사일 개발은 이웃나라들을 위협하고 있다

북한은 핵·미사일 등 대량살상무기 개발을 서둘러 왔다. 북한은 이미 1970년대부터 미사일 개발을 위해 기술 입수에 주력하여 1986년에는 거의 100% 독자적인 생산단계로 발전하였으며, 현재 연간 약 100여 기의 중거리 미사일 스커드 B와 C를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1993년에는 사정거리 1,300km인 지대지미사일 ‘노동 1호’를 개발하였으며, 사정거리 2,000~7,000km의 신형 중·장거리 미사일 개발을 계속 추진하고 있어 이미 일본 전역을 겨냥할 수 있고, 미국 알래스카지역까지 위협하고 있다.





〈사진21〉 북한이 인공위성이라고 주장한 ‘광명성 1호’의 발사대와 발사 모습

1998년에는 ‘대포동 1호’ (북한은 인공위성 ‘광명성 1호’라고 주장)를 시험 발사하였고, 2006년 7월에도 자체적으로 개발한 미사일을 발사하여 전세계에 우려와 함께 큰 충격을 안겨주고 있다.

북한은 이러한 미사일을 이란·리비아 등 중동지역에 수출하고 있으며, 자칫 테러집단의 손에 들어갈까 봐 미국 등 서방 여러 나라들이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는 실정이다.

## 2. 북한이 핵무기를 갖는 것을 이웃나라들도 반대하고 있다

북한이 핵무기를 갖거나 개발하는 것을 이웃나라들도 다 반대하고 있다. 남북한은 1992년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을 통해 한반도 안에서는 핵무기를 개발하지도 않으며 갖지

도 않기로 하는 등 비핵화를 약속하였다.

그리고 1994년에는 미국과 북한이 ‘제네바합의’를 통해 북한이 핵개발을 하지 않기로 합의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그동안 핵무기 개발을 꾸준히 추진하여 2006년 10월 9일에는 끝내 핵실험을 감행함으로써 세상을 깜짝 놀라게 하였다.

10월 14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북한의 핵실험을 국제 사회에 대한 위협으로 규정하고 강력한 제재조치를 취하게 되었다.

북한이 핵무기를 가져서는 안된다. 그 이유는 무엇보다 남 북한에 전쟁이 일어날 경우 핵무기를 쓸 위험이 있기 때문이다. 한반도 전쟁에서 핵무기를 쓴다면 우리민족은 다 같이 회복 불능의 큰 피해를 입게 된다.



〈사진22〉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안 결의 모습

북한이 핵무기를 가지게 되면 일본이나 대만에게 핵무기 개발의 구실을 주게 되고, 우리도 핵무기를 가져야 한다는 국민여론이 일어날 수 있게 된다.

이렇게 되면 우리가 원하는 통일은 고사하고 한반도는 평화 대신에 남북한의 군비경쟁이 심해지는 등 다시 대결의 시대로 돌아갈 수도 있기 때문이다.

### 3. 이웃나라들은 한반도 통일문제를 어떻게 보고 있는가?

우리의 이웃나라들은 모두 한반도 통일을 원하고 있다고 말한다. 그러나 한반도에서 평화가 유지되는 것은 바라지만 통일은 원하지 않고 있다는 주장도 있다. 왜냐하면 한반도가 통일이 되면 우리나라가 강력한 통일국가를 이루어 이웃나라들의 뜻대로 움직여 주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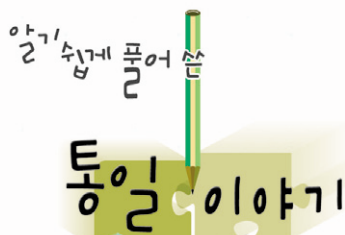
그러나 설혹 이웃나라들이 서로간의 이해관계 때문에 한반도 통일을 탐탁지 않게 생각하더라도 남북한이 뜻을 합쳐 통일의 열망을 실천한다면 불가능할 것이 없다.

무엇보다 우리 민족이 우리의 운명을 개척하겠다는 의지와 한반도에서 평화를 정착시키고 민족통일을 이룩하겠다는

것을 보여주어야 한다.

지금처럼 남북한이 군비경쟁체제를 유지하면서 서로 반목한다면 이웃나라들도 우리의 통일문제에 대해 냉담할 것이다. 통일은 바로 우리의 문제이며 우리가 주인이 되어 풀어가야 할 때 이웃나라들도 돕게 될 것이다.

편지 한 장 주고 받지 못하고 남북을 자유롭게 오가지도 못하며 이산가족이 서로 같이 살 수 없는 우리들이 어찌 통일을 위한 이웃나라의 도움을 기대할 수 있겠는가?



알기 쉽게 풀어 쓴  
통일 이야기





## IX. 미래로, 통일로

### 1. 우리는 통일을 꼭 이루어야 한다

- ◆ 우리 민족은 한반도를 터전으로 하여 5천년의 역사를 누리며 살아 왔다. 따라서 통일을 이루는 것이야말로 우리 민족의 한결같은 소원이다.
- ◆ 남북분단이 더 이상 계속될 경우, 남북한은 불필요한 군비경쟁과 반목은 물론, 다시금 옛날처럼 대결 시대로 돌아갈 수도 있다.

### 2. 통일은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한가?

- ◆ 통일은 평화적 방법과 민주적인 절차에 따라 온 민족

의 자유로운 선택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

- ◆ 6.25전쟁이나 다른 나라의 무력통일에서 보았듯이 전쟁을 통한 통일은 우리 민족에게 큰 재앙이 될 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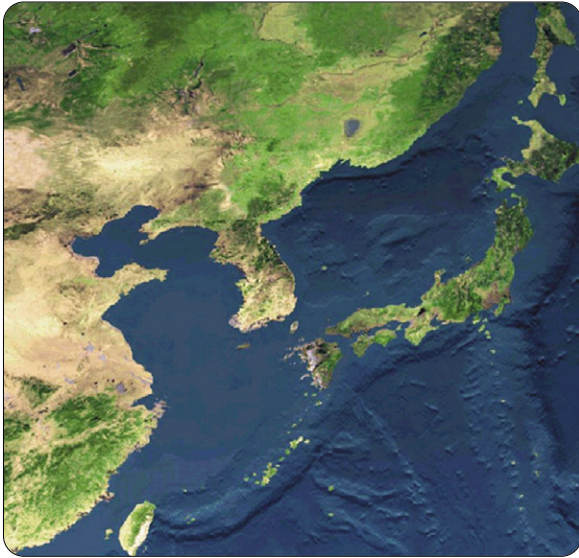
### 3. 통일된 나라는 어떤 체제를 갖는 것이 바람직할까?

- ◆ 통일된 나라는 인간의 존엄성이 보장되며 누구나 평등하고, 모든 국민이 골고루 복지를 누리며 살 수 있는 자유민주주의국가이어야 한다.
- ◆ 아무리 통일이 중요하고 시급한 문제라고 할지라도 통일이 되어 역사가 후퇴하고 세계사의 흐름에 뒷걸음질하는 통일은 바람직하지 않다.
- ◆ 통일된 나라는 민족의 번영과 발전이 약속되는 국가이어야 한다.

### 4. 통일이 된다면 우리나라는 어떤 모습이 될까?

- ◆ 둘로 갈라졌던 나라가 하나가 됨으로써 통일된 나라는 22만km<sup>2</sup>가 되고, 우리 민족의 활동 무대가 그만큼 넓어진다.

- ◆ 남북한 7천만 동포가 하나의 국민을 이루게 되어 함께 노력하면 선진 강대국에로의 진입은 그만큼 빨라지게 될 것이다.
- ◆ 통일이 되면 우선 경제는 일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지역 간 갈등이 생길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어려움이 풀리게 되면 민족의 발전역량은 더욱 커질 것이다.
- ◆ 분단된 한반도가 하나의 통일국가가 됨으로써 동북아시아의 중심국가(허브)가 될 수 있을 것이다.
- ◆ 통일, 그것은 우리나라를 선진 강대국이 될 수 있는 조건을 만드는 것이다.



〈사진23〉 동북아시아 지형도



## 5. 우리는 통일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가?

현재 우리는 통일을 위해 준비하고 있고, 통일을 이루어 가는 과정에 있다. 남북간 교류와 협력, 그리고 사람들의 왕래를 통해 이미 통일은 시작되고 있다. 이러한 작은 통일은 큰 통일로 이어질 것이다.

통일에 대한 우리 민족의 열망이 불같고 남북한 동포가 다같이 통일을 위해 노력한다면 통일은 언젠가 이루어질 수 있다. 통일은 어렵더라도 결코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그러나 아직도 남북간에는 서로 신뢰가 굳건하지 않고 평화도 안전하게 약속되어있지 않은 상태이다. 한반도는 아직도 전쟁이 끝나지 않은 '휴전상태'가 지속되고 있다.

통일에 앞서 필요한 것은 한반도의 평화정착이다. 평화정착 없이 통일을 기대하는 것은 '나무에 올라가 물고기를 구하는 것' 과 다름이 없다.

한반도에 평화를 정착시키고 통일에 이르기까지는 넘어야 할 산이 너무나 많다. 그 때까지 남북한은 교류와 협력을 통해 서로를 이해하고 평화에 도움이 되지 않는 것들을 하나씩 없애 나가야 한다.

통일은 누가 가져다주는 것이 아니다. 우리 민족이 스스로 얻어내야 할 과제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민족의 노력도 중요하지만 이웃나라와 협조해 나가는 것도 필요한 것이다.

먼 훗날 우리는 “통일을 위해 무엇을 했느냐”고 후계세대가 묻는다면 “우리의 소원인 통일을 위해 한 몫을 했노라”고 떳떳이 이야기할 수 있어야 한다. 🌐

## 「주제가 있는 통일문제 강좌」 시리즈

01. 대북협상, 어떻게 볼 것인가? (2003. 12)
02. 대북지원, 새롭게 보자 (2004. 8)
03. 먹거리를 통해 본 북한 현실 (2005. 2)
04. 한반도 평화정착과 유럽연합의 교훈 (2005. 3)
05. 21C 국제질서의 변화와 한반도 (2005. 7)
06. 남북관계발전의 법적 이해 (2005. 6)
07. 남북한의 역사인식 비교 (2005. 9)
08. 남북한 예술 어떻게 변하였나? (2005. 9)
09. 남북한 IT 용어 비교 (2005. 9)
10. 김정일시대 북한교육의 변화 (2006. 3)
11. 북한법을 보는 방법 (2006. 4)
12. 정보화 시대, 북한의 정보화 수준 (2006. 12)
13. 북한 과학기술의 이해 (2006. 12)
14. 북·중 변경무역과 북한의 시장 실태 (2006. 12)

### 주제가 있는 통일문제 강좌 15

### 알기 쉽게 풀어 쓴 **통일 이야기**

- 인쇄일 2006년 12월 30일
- 발행일 2006년 12월 31일
- 발행처 통일부 통일교육원 연구개발팀  
142-715, 서울시 강북구 수유6동 535-353  
전화 02) 901-7160~7 / 팩스 02) 901-7088  
통일교육원 홈페이지 [www.uniedu.go.kr](http://www.uniedu.go.kr)

- 편집/인쇄처 맥향커뮤니케이션  
전화 2272-7890



...우리의 통일정책과 통일방안에서 한결같이 지켜온 뿌리는  
첫째, 통일은 평화적 방법과 민주적 절차에 따라 이루어져야 하며,  
둘째, 민족구성원 모두에게 자유와 인권  
그리고 번영이 보장되는 통일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